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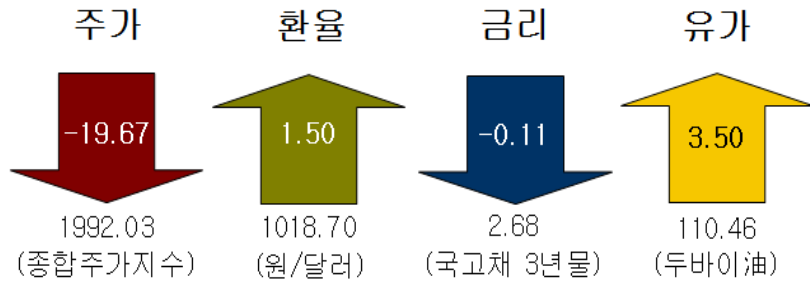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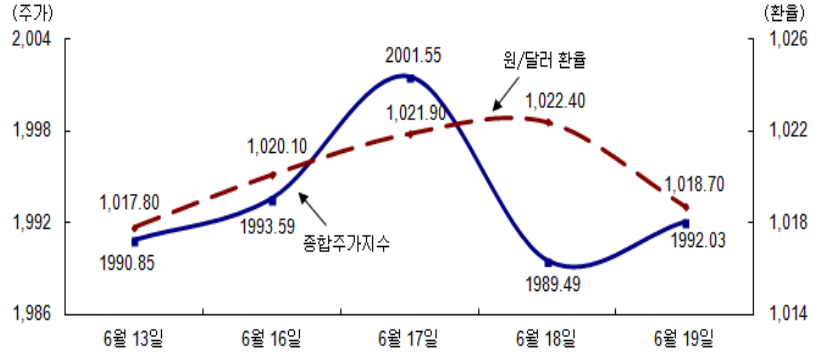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별첨〉 2014년 수정 경제전망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3~6.19)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30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이 준 협 경제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홍 준 표 연구위원 외 (2072-6214, jphong@hri.co.kr)

□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하방위험

2014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하였다. 통계 개편 효과를 제거할 경우 0.4%p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다.

■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내·외수 동반침체로 인한 더블딥 가능성 상존) 2014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양상을 띠고 있다. 하반기에 내·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표경기과 체감경기의 괴리 확대) 지표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과 체감물가, 체감고용, 체감 계층인식이 악화되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는 소비심리 약화로 이어져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수단을 제약할 수 있다.

(고용의 양적 확대 속 질적 후퇴) 신규취업자가 크게 늘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 및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등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질적 후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화 환율 1000-1000 붕괴 우려) 2014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기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동반 악화되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규제, 과잉산업 투자 억제 등의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도 차이나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원자재발 국내 성장 둔화 가능성 존재) 국제 원자재가격은 하락 추세이나 올 하반기에 이라크 내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대란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부진해지며, 해외 경기 부진에 따르는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정책)** 재정 조기 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회복 추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국내 경기가 급락할 경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외환정책)**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1,120~1,130원/달러 수준인 균형환율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 <별첨> 2014년 수정 경제전망

구 분	2012년 연간	2013년			201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3	2.4	3.5	3.0	3.7 (3.9)	3.6 (3.6)	3.6 (3.8)
민간소비 (%)	1.9	1.9	2.1	2.0	2.3 (2.8)	2.6 (2.6)	2.5 (2.7)
건설투자 (%)	-3.9	6.4	7.0	6.7	3.1 (1.7)	2.1 (3.3)	2.6 (2.5)
설비투자 (%)	0.1	-8.3	6.2	-1.5	7.0 (9.8)	3.9 (3.9)	5.4 (6.7)
수출 (%)	-1.3	0.5	3.8	2.1	3.0 (7.5)	5.6 (9.3)	4.3 (8.4)
소비자물가 (%)	2.2	1.4	1.2	1.3	1.4 (2.2)	1.9 (2.6)	1.7 (2.4)
실업률 (%)	3.2	3.4	3.2	3.3	3.8 (3.2)	3.4 (3.0)	3.6 (3.1)
원/달러환율(평균,원)	1,127	1,101	1,095	1,098	1,050 (1,080)	1,010 (1,060)	1,030 (1,070)

주 : 2014년(E)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는 2013년 10월 시점 전망치.

1.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하방위험

○ (경제전망)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 미약

- 2014년 상반기에 국내 경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거래 회복세 미약
 - 민간소비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미국 한파에 따른 일시적 수출 둔화 등으로 회복세 미약
 - 수출과 수입 모두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낮게 형성되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
- 2014년 하반기에 외수 경기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되나, 민간 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
- 이에 따라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로 0.2%p 하향 조정. 통계 개편 효과를 제거할 경우 0.4%p를 하향 조정한 것임

○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 강화와 더불어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하반기에 내·외수 동반침체로 인한 더블딥 우려, 지표경기과 체감경기의 괴리 확대, 고용의 양적 확대 속 질적 후퇴, 원화환율 1000-1000 붕괴 우려,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이변에 따르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하방위험 상존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반	하반	연간
GDP	2.6 (0.5)	2.4 (0.5)	2.1 (0.4)	2.1 (0.6)	2.3	2.1 (0.6)	2.7 (1.0)	3.4 (1.1)	3.7 (0.9)	3.0	3.9 (0.9)	3.7 (3.9)	3.6 (3.6)	3.6 (3.8)
민간소비	1.7 (0.8)	0.7 (0.2)	2.6 (1.2)	2.7 (0.4)	1.9	1.7 (-0.1)	2.1 (0.7)	2.1 (1.0)	2.2 (0.6)	2.0	2.5 (0.2)	2.4 (2.8)	2.6 (2.6)	2.5 (2.7)
설비투자	11.1 (11.5)	-1.8 (-8.0)	-4.2 (-3.2)	-4.0 (-3.3)	0.1	-12.7 (1.5)	-3.9 (1.0)	1.5 (2.7)	10.9 (5.6)	-1.5	7.3 (-1.9)	7.0 (9.8)	3.9 (3.9)	5.4 (6.7)
건설투자	-0.2 (-2.1)	-5.4 (-3.0)	-2.7 (1.2)	-6.2 (-2.4)	-3.9	2.0 (6.5)	10.0 (4.6)	9.0 (0.2)	5.9 (-5.2)	6.7	4.3 (5.1)	3.1 (1.7)	2.1 (3.3)	2.6 (2.5)
수출	2.9	-1.7	-5.8	-0.4	-1.3	0.4	0.7	2.7	4.7	2.1	1.7	3.0 (7.5)	5.6 (9.3)	4.3 (8.4)

자료 : 한국은행.

주 : 1) () 안은 전기대비 성장률임. 단 음영이 있는 () 안은 2013년 10월 시점 전망치임.
2) 음영 처리된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① 내·외수 동반침체로 인한 더블딥 우려

○ (의미) 내·외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4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양상을 띠

· 소프트패치란 경기 회복 국면에서 경기 확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현상으로서, 경기 회복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

- 내·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더블딥이란 경기가 회복 국면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경기 저점을 형성하는 경기 재침체 현상을 뜻함

○ (내용) 내·외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더블딥 가능성 상존

- 내수 둔화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세월호 충격이 겹치면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비)이 2013년 3/4분기 1.0%를 정점으로 4.4분기 0.6%, 2014년 1/4분기 0.2%로 지속적으로 하락

·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 -8.0%에서 2013년 4/4분기 5.6%로 개선세가 이어지다가 2014년 1/4분기에 -1.9%로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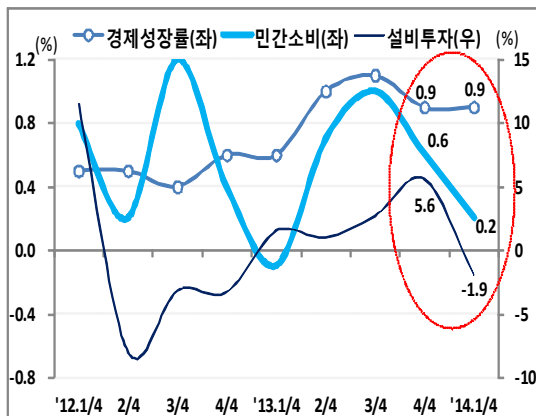
·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감소¹⁾

·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에 3p 하락하고(108p→105p), 제조업 업황BSI는 3p(82p→79p), 서비스업 업황BSI는 2p(71p→69p) 하락

1) 현대경제연구원(2014.5월),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된다 - 세월호 충격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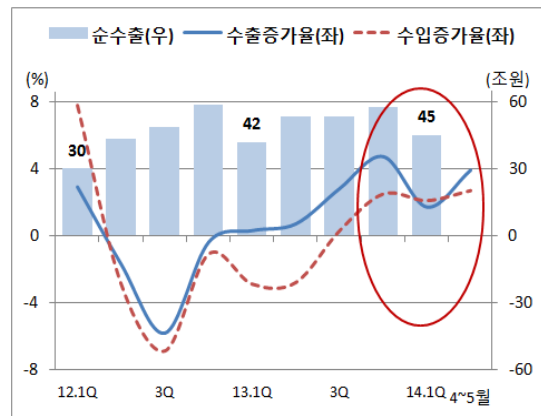
-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전후로 레저업의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2.9%에서 -3.6%로 급감하고, 요식업도 12.7%에서 7.3%로 감소
- **외수 회복세 미약** : 수출과 수입 모두 회복세 미약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이 2012년 3/4분기 -5.8%에서 2013년 4/4분기 4.7%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4년 들어 증가세 주춤
 - 수입증가율은 2012년 3/4분기 -6.9%에서 2013년 4/4분기 2.5%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4년 들어 횡보
 - 다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더 낮아 순수출(국민계정) 흑자폭이 확대('13.1Q 41.9조원 → '14.1Q 44.9조원)되고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형국
- **대내외 하방위험 상존**
 - **대내**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심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노후준비 미흡, 일자리의 질 악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만성적인 소비침체에 빠질 우려
 - **대외** :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및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중국 경기 둔화 및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대중 수출 약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 등도 상존
- (시사점) 하방위험 관리를 통해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 집중

<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 증가율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 수출입 증가율 및 순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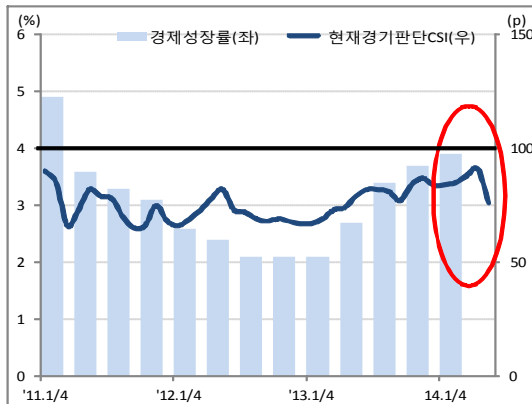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 순수출은 국민계정에서의 수출수입.

②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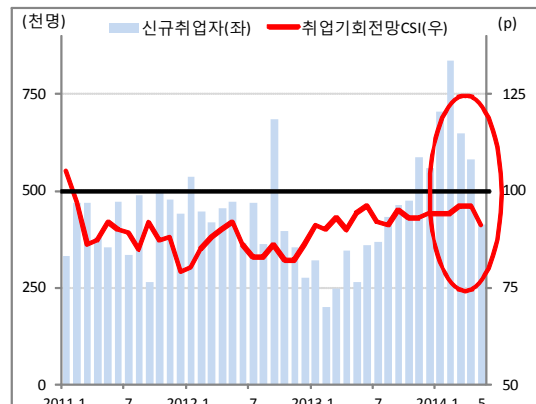
- (의미) 지표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는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져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의 정책수단도 제약될 수 있음
- (내용) 경기, 고용, 물가, 계층인식에 있어서 공식지표와 체감지표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 경기 : 지표상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악화
 - 경제성장률(전기비)은 2013년 3/4분기 이후 1%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분기 2.1%에서 2014년 1/4분기 3.9%로 상승
 - 반면 가계의 현재경기판단CSI는 세월호 충격으로 5월에 15p나 급락(91p→76p)하여, 기준선인 100p를 크게 하회
 -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국민소득(GNI; 전기비)도 2013년 4/4분기 1.0%에서 2014년 1/4분기 0.5%로 크게 하락하여 GDP 증가율 0.9%를 하회
 - 고용 : 지표상 신규취업자가 급증하고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 여건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2월 신규취업자가 20.1만명에서 2014년 2월 83.5만명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2014년 4월 고용률(15-64세 기준)이 6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반면 가계의 취업기회전망CSI는 5월에 5p 하락(96p→91p)하여 기준선(100p)에서 떨어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 및 현재경기판단CSI >



자료 : 한국은행.
주 :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 신규취업자 및 취업기회전망CSI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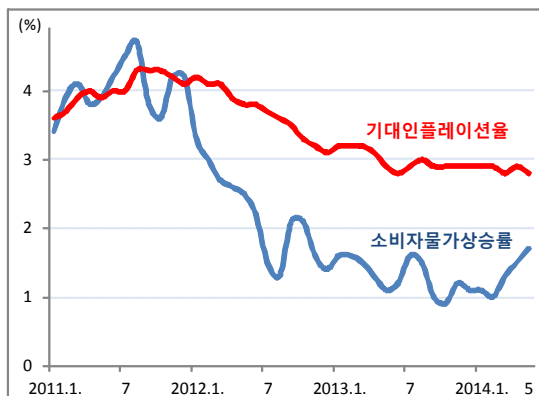
- **물가** : 지표상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
 - 지표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19개월째 1%대에 머물
 - 반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국민 인식은 3% 내외의 높은 수준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3% 내외를 기록 (한국은행)
 -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지표 물가는 1.3% 상승한 반면 체감물가는 5.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²⁾

- **계층인식** : 지표상 공식중산층 비중은 커지는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³⁾
 - 총인구 중 공식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66.9%에서 2013년 69.7%로 2.8%p 상승한 반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오히려 3.5%p 감소 (통계청)

- (시사점) 정부는 지표경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와 체감물가, 체감고용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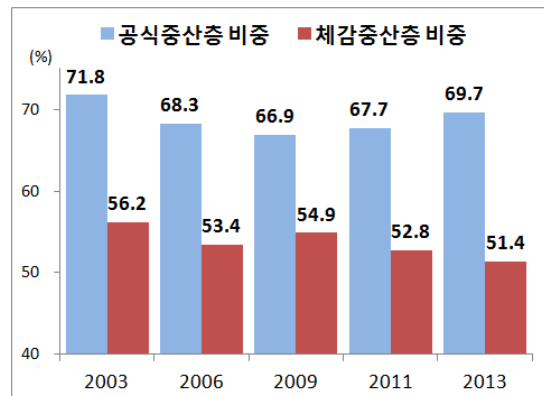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지표상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어 통화완화정책의 여지가 충분하나, 국민의 체감물가를 고려하여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미시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 비중 >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 사회조사).

2) 현대경제연구원(2012.10월), “지수경기는 디플레이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및 현대경제연구원(2013.9월),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참조.
 3) 현대경제연구원(2014.6월),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참조. OECD기준 중산층이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이 중위값의 50~150%인 경우로서,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

③ 고용의 양적 확대 속 질적 후퇴

○ (의미)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소비심리 개선 및 내수 경기 회복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음

- 고용의 질적 후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

○ (내용) 신규취업자가 크게 늘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 및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후퇴

- 고용호조 :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이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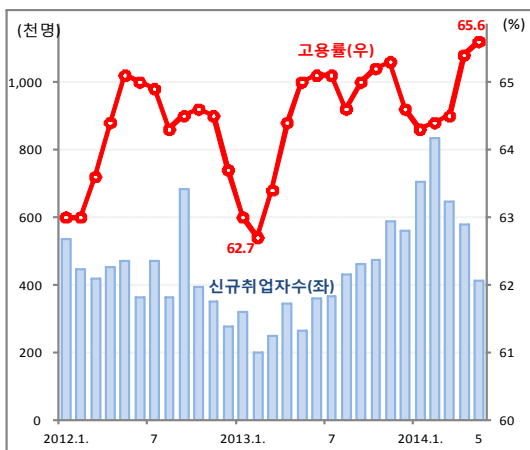
· 신규취업자 :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 2월 20.1만명에서 2014년 2월 83.5만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이후에도 호조세 지속

· 고용률(15~64세) : 2013년 2월 62.7%로 최소치를 기록했고,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14년 5월 65.6%로 최고치 달성

- 산업별 신규취업자 : 도소매·음식점업 및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임금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고용호조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움

· 신규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낮음

<신규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고용률은 15~64세 기준임.

<주요 산업별 신규취업자 추이>

	(천명)		
	2012	2013	2014
농업·임업·어업	-31	-9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	46	-13
제조업	-102	119	123
전기·운수·통신·금융	131	-12	56
건설업	79	-64	27
도매 및 소매업	73	-71	159
숙박·음식점업	27	34	144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86	129	117
계	467	257	729

자료 : 통계청.
주 : 각 년도는 1/4분기 기준임.

- 신규취업자는 2014년 1/4분기에 72.9만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도·소매 15.9만명, 숙박·음식점업 14.4만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11.7만명 등 저부가치 업종의 영향이 큼4)
- 임금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 격차 확대
 -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12~2014년 동안 연평균 3.0%로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0.9%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102.2만원에서 2014년 114.2만원으로 확대
- 사회보험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사회보험 가입 격차 확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2013~2014년 동안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
 -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은 2013~2014년 동안 1.0%p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0.1%p 증가에 그침
 - 그밖에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근로복지수혜자 비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확대됨
- (시사점)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개선하여,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통한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

< 정규·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추이 > (만원, %) < 정규·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 (% , %p)

	< 정규·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추이 > (만원, %)			< 정규·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 (% , %p)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분류	2013	2014	증감	
'12.3.	245.4	143.2	102.2	국민 연금	정규직	81.3	82.0	0.7
'12.8.	246.0	139.3	106.7		비정규직	40.0	39.7	-0.3
'13.3.	253.3	141.2	112.1	건강 보험	정규직	83.2	83.9	0.7
'13.8.	254.6	142.8	111.8		비정규직	46.8	46.2	-0.6
'14.3.	260.1	145.9	114.2	고용 보험	정규직	80.5	81.5	1.0
年증가율	3.0	0.9	-		비정규직	43.9	44.0	0.1

자료 : 통계청.

주 :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4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주 : 각 년도는 3월 기준임.

4) 2014년 1~3월 평균 임금은 163만원인데, 도·소매업은 113만원, 숙박·음식업은 76만원으로 평균 이하.

④ 원화 환율 1000-1000 붕괴 우려

○ (의미) 2014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외수 경기 동반 부진 우려

- 원화 환율의 1000-1000 붕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최근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기까지 부진을 겪을 우려
-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율 절상물만큼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

○ (내용) 국내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 선진국 통화의 약세 대비 원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원화 환율 하락이 지속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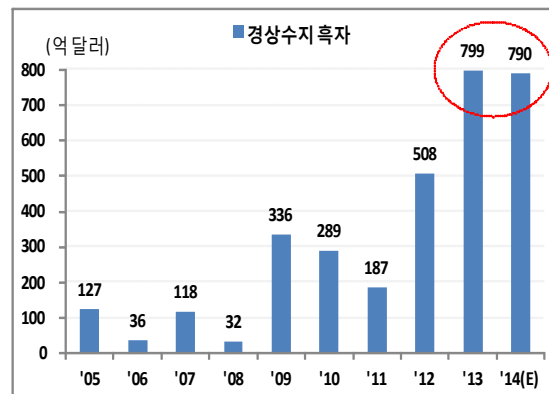
- 환율 추이 : 최근 하락세인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하반기에도 그 추세를 유지하여 1,000원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원/달러 환율은 2013년 평균 1,095.0원에서 2014년 1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평균 1,051.3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2% 절상
- 원/엔 환율은 2013년 평균 1,124.3원에서 2014년 1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평균 1,025.5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9.6% 절상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원/달러(중기준), 원/100엔(외환은행고사기준).

< 국내 경상수지 흑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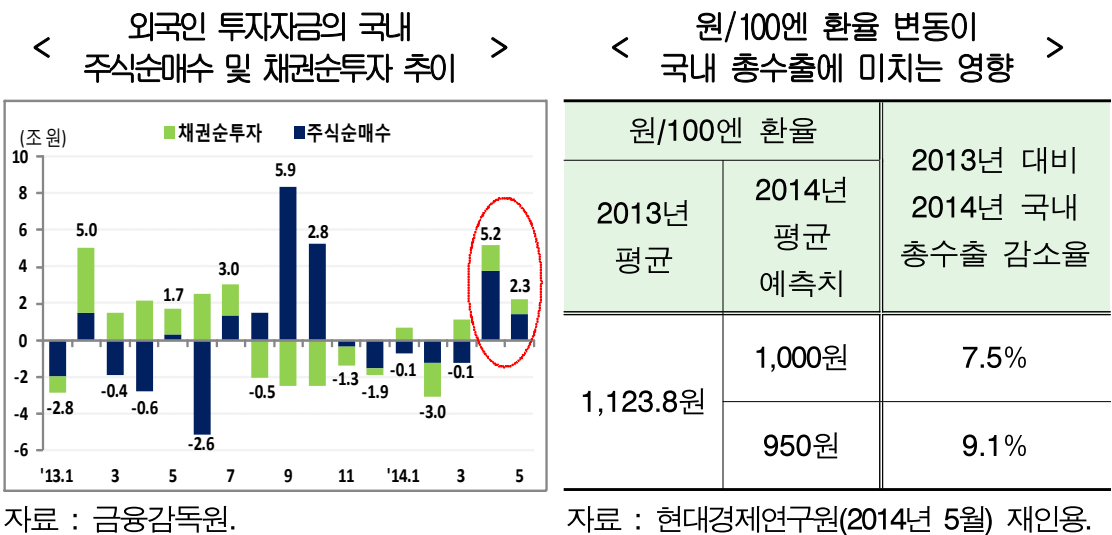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

5) 현대경제연구원(2012.10월)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와 파급 영향” 참조.

- 환율 하락 배경 : 국내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본의 국내 주식 순매수 등으로 인한 국내 달러 공급 증가와 선진국 통화 약세로 인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
 - 국내 경상수지 흑자는 2013년의 799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하였으며 2014년 1~4월 경상수지 흑자인 222억 달러는 각 년도 1~4월 중 최대치
 - 자본거래 측면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작년 하반기의 순매도 기조에서 올해 4~5월에는 순매수 기조로 전환
 - 예상보다 더딘 미국의 경기 회복과 미약한 회복세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과 유럽 등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선진국 통화 약세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

- 국내 수출 감소 우려 : 엔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켜 총수출 감소 우려
 - 일본은 소비세 인상의 후속 조치로 추가적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 약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일본과의 수출 경합제품이 많아 기타 통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보다 원/엔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 2013년 연평균 1,124원이었던 원/엔 환율이 2014년에 연평균 950원까지 하락할 경우 올해 국내 총수출은 전년대비 9.1% 감소 우려⁶⁾

- (시사점) 환율의 급격한 쏠림을 방지하고 변동성 확대 리스크에 대비하여 원화 환율의 1000-1000 붕괴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를 최소화



6) 현대경제연구원(2014.5월), “원/100엔 환율, 1,000원 붕괴의 영향과 시사점” 참조.

⑤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

○ (의미) 최근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동반 약화되는 등 성장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차이나 리스크 확대가 우려

- 최근 중국경제의 내·외수 하방리스크 해소가 지연되면서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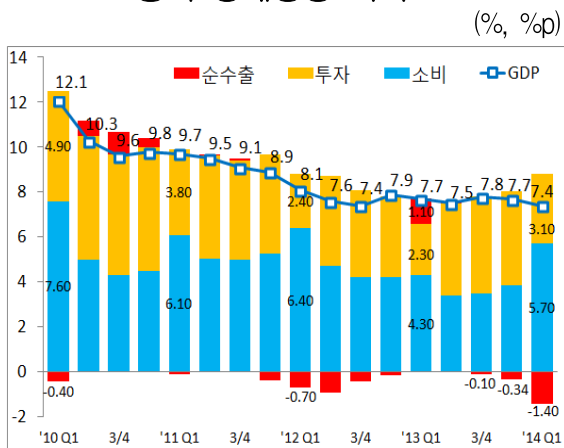
○ (내용) 중국경제는 내·외수 동반 약화 등 실물경기 둔화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과잉산업 투자 억제 등 구조조정 가속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

-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경기도 회복세가 미약
 · 소비와 투자가 2014년 4월 현재, 각각 11.9%, 17.8%로 각각 5개월,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수출은 5월 현재 7.0%로 대폭 증가했으나 미약한 수준

- 특히 중국 고정자산투자의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둔화세 지속
 · 민간·중소형 제조기업 업황을 나타내는 HSBC의 제조업 PMI가 5월 49.4p로 5개월 연속 50p를 하회하고, 100대 신규주택가격 증가율이 2014년 5월 현재 7.8%로 지난 2013년 12월 11.5%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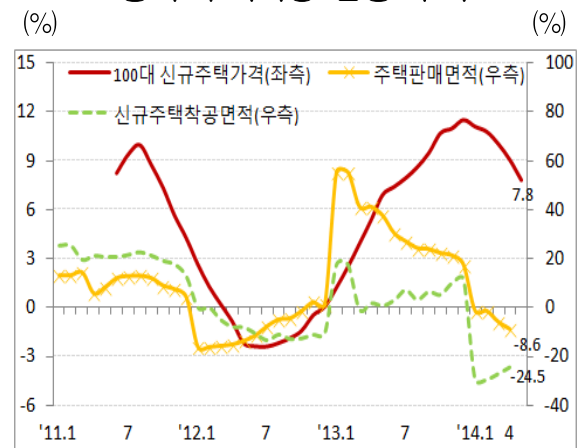
- 더욱이 지난해 확대된 그림자 금융, 과잉산업 투자 등 금융 및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되면서 빠른 경기회복을 저해

<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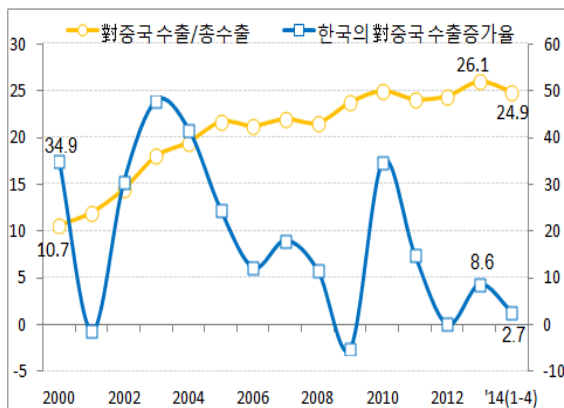
< 중국 주택시장 업황 추이 >



자료 : 중국지수연구원,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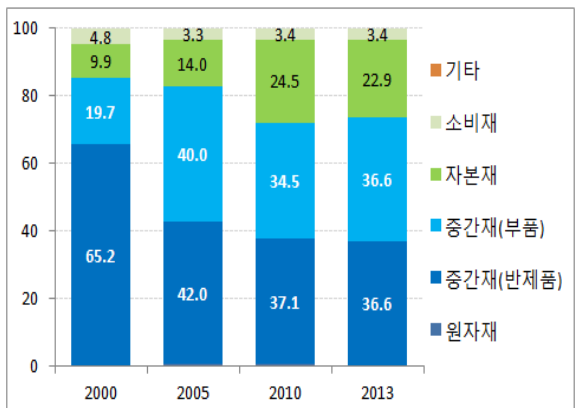
- **과급영향** : 중국경제의 하방리스크 해소 지연에 따른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요 감소가 국내 산업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
 - 국내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지속 증가하나, 對중국 수출증가율은 감소세
 - 국내의 對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2013년 26.1%로 약 2배 이상 증가
 -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의 내·외수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對중국 수출증가율은 2010년 34.8% 이후 지속 감소, 2014년 4월 현재 2.7%로 급감
 - 더욱이 중국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부품, 반제품 등 對중국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 감소로 국내 산업경기 둔화 가능성도 우려
 - 국내의 對중국 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13년 현재 약 73%로 지난 2000년 약 85%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국내 수출의 주력품목
 - 반면, 자본재, 소비재 등 최종재는 2013년 현재 26.3%로 지난 2000년 14.7% 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중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 (시사점) 향후 중국경제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對中 수출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중간재 및 소비재의 對中 수출 경쟁력 강화, 중국의 하방 리스크의 국내전이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모색

< 한국의 對중국 수출/총수출 비중 추이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2014년은 1-4월 누적치 기준.

< 기공단계별, 한국의 對중국 수출 비중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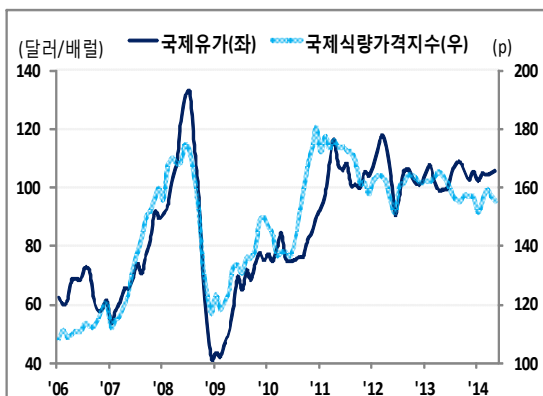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UN BEC 코드 방식으로 분류.

⑥ 국제원자재발 성장 둔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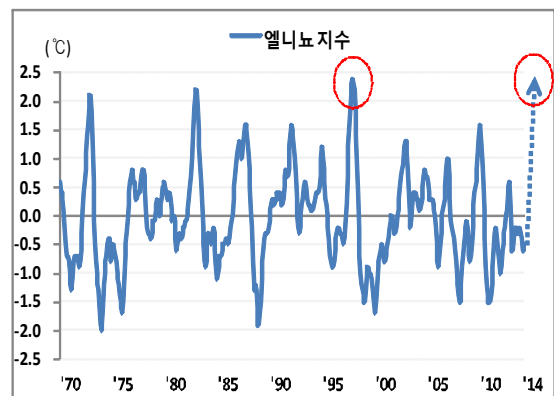
- (의미) 올 하반기에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확대되는 불안감이 국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높음
 - 국제원자재 시장에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엘니뇨 발 기상이변이 현실화 될 경우 하향 안정세인 국제원자재 시장에 큰 혼란 우려
- (내용) 국제 원자재가격은 하락 추세이나, 올 하반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 국제원자재 가격 현황 : 2011년 이후 수급 여건의 개선으로 하향세를 유지
 - 국제유가는 2012년 이후 하락세로서 2014년 현재 105달러 수준에서 횡보
 - 국제식량가격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시장 불안 요인 : 최근 동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엘니뇨⁸⁾ 발생으로 기상이변 발생 우려 점증
 -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라크 내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미국 국립기상국(NOAA)은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 확률이 65% 이상이며 기상 사이클상 17년만의 초대형급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⁹⁾

< 국제 유가 및 식량가격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FAO.
 주 : 국제유가는 WTI, 브렌트, 두바이 유가 평균.

< 엘니뇨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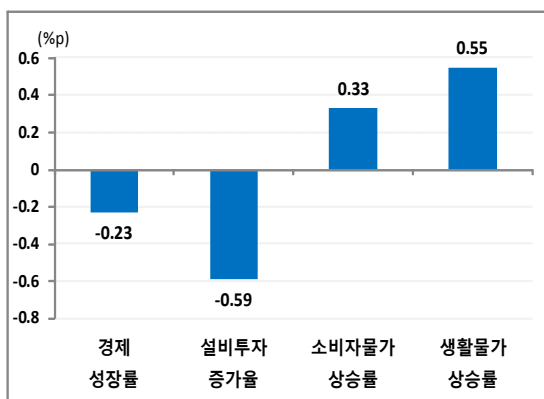


자료 : 미국 국립기상국(NOAA).
 주 : 엘니뇨 지수가 0.5°C 보다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 발생으로 간주.

7) 자세한 현황 및 전망은 본 보고서 19페이지의 <별첨>의 '국제 원자재 : 가격 하락세 지속' 참고.
 8) 엘니뇨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평균값이 평상시보다 0.5°C 이상인 상태(엘니뇨 지수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일컬으며, 첫 번째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봄.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상시보다 많이 오르면서 국지성 호우, 가뭄, 냉해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함.
 9) 미국 국립기상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4년 5월 8일,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Diagnostic Discussion - El Niño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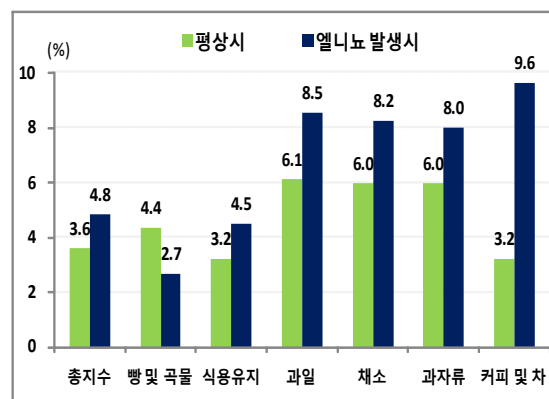
-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 영향 :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투자 부진, 물가 상승 우려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에서는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부진해지며, 해외경기 부진에 의한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
 -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간 0.23%p와 0.59%p 하락 우려¹⁰⁾
 -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와 생활필수품 위주인 생활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각각 0.33%p 및 0.55%p 높아짐¹¹⁾
- 엘니뇨 발생의 국내물가 파급 영향 :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세계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국내 식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 평상시에 전년동월대비 평균적으로 0.01%씩 상승하였던 국제곡물가격은 과거 엘니뇨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기상재해로 인해 평균 5.28%씩 상승하였음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수입원재료를 가공하는 국내 식품가격 역시 상승하고, 우리나라에도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채소와 과일류 등 신선식품 가격 상승 전망
- (시사점) 국제원자재발 물가 급등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석유 비축 규모 증대, 국내 신선식품 수급안정 및 가격변동성 완화 장치 등 대응책 마련
 -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는 원유 비축 규모 증대와 수급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에 대한 비축 물량 확대에 가격 변동성 확대의 부작용 최소화

< 국제유가 10% 상승시 국내경제 파급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연간 물가상승률 증가율 성장률을 일컫음

< 시기별 국내 소비자물가 및 식료품물가 평균상승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주 : 1) 대상기간은 1991년 ~ 2014년 4월.
2)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10)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3월, 「크립반도 리스크 고조의 경제적 파급 영향」.

11)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3월, 「재스민 혁명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시사점

- (시사점) 소프트패치 국면에 놓인 한국 경제가 더블딥 우려를 씻어내고 경기 회복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 2014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 양상을 띠
 - 내·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소프트패치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재정정책)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
 - 상반기 재정 집행률 57% 차질 없이 달성
 - 고용창출 및 내수활성화에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 고려. 성장·고용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 및 도시개발,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등이, 민간소비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보육·가족·여성 등이 효과적¹²⁾
 - 다만 국내 경기가 급락할 경우 긴급 추경 편성도 고려
-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견지
 -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기준금리 인상은 회복 추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국내 경기가 급락할 경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 * 국내 경기 급락 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
- (외환정책) 환율 하락 속도 조절 및 균형환율과의 과도한 이탈 방지¹³⁾
 - 환율 하락 속도 조절 및 기업의 환변동 위험 완화
 - 환율에 대한 기대의 쏠림 현상으로 환율이 급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세조정

12) 현대경제연구원(2013.3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참조.

13) 현대경제연구원(2014.6월), “원/달러 환율 1000 붕괴 가시권 진입” 참조.

- 환위험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환변동 보험 확대, 환리스크 관리 인력 교육 지원
-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
 - 실제 환율이 균형환율에서 장기간 크게 벗어날 경우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이는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원/달러 균형환율은 1,122~1,134원 수준으로 1/4분기 기준 약 5~6% 고평가되어 있음¹⁴⁾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 → 소비증대 →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유도
 - 기존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되,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부 대책에 대한 조정 필요
 - 임대소득 과세 시점 연기 및 세 부담 완화 등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
 - * 국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약 569만 가구로 추정(그중 무주택자는 약 144만 가구). 저금리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상속 등을 위한 주택구입 촉진 정책 마련¹⁵⁾
-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
 - 창조경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인적자원 관리 강화
 -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R&D 확대, ICT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관광·의료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투자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약화에 대비.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업애로계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노동력 활용,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등도 모색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 필요

이 준 협 경제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홍 준 표 연구위원 외 (2072-6214, jphong@hri.co.kr)

14) 현대경제연구원(2014.4월),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참조.

15) 현대경제연구원(2014.5월),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참조.

<별첨> 2014년 수정 경제전망

1. 2014년 대외 경제 여건

① 세계 경기 : 선진국 중심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선진국은 미약한 회복세, 신흥개도국은 회복세 둔화

-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과 유럽은 회복세 미약.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저조한 성장세는 세계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
- 미국 : 생산과 소비,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 지속. 다만 겨울철 한파로 2014년 1/4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1.0%까지 하락
- 일본 : 통화완화정책 지속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에 따르는 소비 감소 등은 제약 요인
- 유럽 :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졸업하면서 침체 국면에서 탈피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 수준 등 리스크 요인 상존
- 중국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8분기 연속 7%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2014년 1/4분기에는 투자와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약화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 점증
- 신흥개도국 :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입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

<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12년	2013년					연간	2014년 1/4
		1/4	2/4	3/4	4/4			
세계	3.2	-	-	-	-	3.0	-	
선진국	1.4	-	-	-	-	1.3	-	
미국	2.8	1.1	2.5	4.1	2.6	1.9	-1.0	
일본	1.5	1.3	0.7	0.3	0.1	1.5	1.6	
유럽	-0.7	-0.2	0.3	0.1	0.3	-0.4	0.2	
신흥개도국	5.0	-	-	-	-	4.7	-	
중국	7.7	7.7	7.5	7.8	7.7	7.7	7.4	
인도	4.9	4.9	4.2	5.2	4.4	4.7	6.1	
브라질	1.0	0.4	1.6	-0.3	0.4	2.5	0.2	
러시아	3.5	0.2	0.4	0.7	0.9	1.3	-	
ASEAN-5	6.2	-	-	-	-	5.2	-	

자료 : 1) 연간(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April).

2) 분기(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럽: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중앙통계국, 브라질: 중앙통계국, 러시아: 중앙통계국).

주 : 1) 분기성장률(미국: 전기대비연율, 일본: 전기대비, 유럽: 전기대비, 중국: 전년동기대비, 인도: 전년동기대비, 브라질: 전기대비, 러시아 : 전기대비).

2) ASEAN-5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 포함됨.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는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 3.2~3.4%로 2013년 3.0%보다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선진국은 완만하게 회복하나(1.3%→2%내외) 신흥개도국은 회복(4.7%→4% 중후반)
- 미국 : 소비 여력 확대와 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에 2% 중후반을 기록, 2013년의 1.9%를 상회할 전망
- 일본 : 양적완화 등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 초중반을 회복하고,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리스크 상존
- 유럽 : 대외 수요 확대와 재정 위기의 진정 등으로 2014년 유로존 경제는 1% 내외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 다만 높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등 하방 압력 상존
- 중국 :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소규모 경기부양책, 통화완화정책 등으로 7% 초중반의 성장률 전망
- 신흥개도국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금융불안, 정정 불안 리스크 등으로 신흥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4% 중후반을 회복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시점별 전망치 >

(%)

구분	2014년			
	OECD		IMF	
	2013년 11월	2014년 5월	2014년 1월	2014년 4월
세계	3.6	3.4	3.7	3.6
선진국	-	-	2.2	2.2
미국	2.9	2.6	2.8	2.8
일본	1.5	1.2	1.7	1.4
유럽	1.0	1.2	1.0	1.2
신흥개도국	-	-	5.1	4.9
중국	8.2	7.4	7.5	7.5
인도	4.7	5.4	5.4	5.4
브라질	2.2	1.8	2.3	1.8
러시아	2.3	0.5	2.0	1.3
ASEAN-5	-	-	5.1	4.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April, 2014 Jan;
 OECD. 「Economic Outlook」. 2013 Nov, 2014 May.

② 세계 교역 : 완만한 증가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세계 교역은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회복세 불안으로 일시적 둔화
 - 미국의 이상 한파, 일본과 유럽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의 수출입 부진 등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3% 중반에 머물 전망
 - 중국의 성장률 부진과 수입 수요 감소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대외 교역 감소
- (전망) 2014년 하반기에 세계 교역은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 신흥국의 둔화세 완화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
 - 선진국 :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14년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4% 초반, 수입 증가율은 3% 중반을 기록할 전망
 - 다만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의 하방리스크로 선진국의 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우려 상존
 - 신흥개도국 :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2014년 신흥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5% 내외를 기록할 전망
 - 다만 선진국의 세일오일·가스 생산 증가 및 제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선진국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 증가세 제약

< 세계 수출입 전망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E)		
			2013년 10월	2014년 4월	2014년 1월	2014년 4월	
세계 무역 증가율	2.8	3.0	4.9	4.3	5.2	5.3	
수출	선진국	2.1	2.3	4.7	4.2	-	4.8
	신흥 개도국	4.2	4.4	5.8	5.0	-	6.2
수입	선진국	1.1	1.4	4.0	3.5	4.1	4.5
	신흥 개도국	5.8	5.6	5.9	5.2	6.5	6.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April : 2014 January.

③ 국제 원자재 : 가격 하락세 지속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소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원유 :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오일·가스 생산 증가, 충분한 공급 및 재고 등으로 하락세 지속¹⁶⁾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 존재
 - 기타 원자재 : 중국 등 원자재 수요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감소한 반면, 기존에 증가한 생산량 등 수급 여건 개선으로 원자재 가격은 소폭 하락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나,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개선되면서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
 - 원유 : 주요 수입국의 수입 둔화 및 공급·재고 증가로 세계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지속
 - 다만 이라크 사태 악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 차질,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한 공급 증가 등의 불확실성 존재
 - 기타 원자재 : 하반기에도 기타 원자재 가격의 소폭 하락세가 전망되지만, 기상 이변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도 상존

< 국제 유가 현황 및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p)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종	전망기간			상반(E)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두바이	CERA	109.1	105.5	104.7	104.0	104.4	98.9	97.6	98.3
브렌트	EIA	111.7	108.6	107.9	104.7	106.3	102.5	101.3	101.9
	PIRA	111.6	108.7	108.7	110.1	109.4	104.4	101.9	103.2
국제원자재가격지수		110.0	102.0	-	-	99.0	-	-	99.0

자료 : CERA(2014.5.9), EIA(2014.5.6), PIRA(2014.5.20), World Bank(2014. 4).
 주 : 1)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2) 국제원자재가격지수(2010년=100)에는 원유를 제외한 농산물과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됨.

16) 미국 에너지정보청(IEA)의 「Oil Market Report」(2014.4월)에 따르면, 2014년 1/4분기 세계 1일당 석유 수요량은 9,120만 배럴인 반면 공급량은 9,230만 배럴로 매일 약 110만 배럴의 초과 공급 발생.

④ 주요국 환율 : 달러 약세 기조 속 변동성 완화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미 달러화와 엔화는 통화완화정책 지속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위안화는 지속적인 국제화 정책으로 강세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 지속
 - 주요국과의 무역 규모를 감안한 달러인덱스는 2014년 1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76~77p 수준을 횡보하며 약세 지속
 - 전일대비 변동률은 2014년 평균 0.17%로, 2013년 0.28%보다 낮은 수준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도 달러화와 엔화는 약세, 위안화는 강세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달러화 : 미국 경기 회복이 예상되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 지속
 - 유로화 : 유로존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 전망
 - 엔화 : 일본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세 인하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전망
 - 위안화 : 국제 교역에서의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과 경상수지 흑자 등의 요인으로 위안화 강세 지속 전망

<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평균	1.34	1.31	1.29	106.00	108.00	109.00	6.15	6.11	6.08
최고	1.38	1.36	1.35	112.00	112.00	116.00	6.26	6.25	6.17
최저	1.28	1.25	1.20	102.00	101.00	99.00	5.92	5.88	5.95

자료 : 국제금융센터(2014.6.6).
 주 : 14개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전망치.

2. 2014년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① 경기 개관 :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 미약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국내 경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거래 회복세 미약

- 민간소비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미국 한파에 따른 일시적 수출 둔화 등으로 회복세 미약
- 수출과 수입 모두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낮게 형성되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

○ (전망) 2014년 하반기에 외수 경기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이다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되나, 민간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
-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로 0.2%p 하향 조정
 - 통계 개편 효과를 제외할 경우 0.4%p를 하향 조정한 것임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반	하반	연간
GDP	2.6 (0.5)	2.4 (0.5)	2.1 (0.4)	2.1 (0.6)	2.3	2.1 (0.6)	2.7 (1.0)	3.4 (1.1)	3.7 (0.9)	3.0	3.9 (0.9)	3.7 (3.9)	3.6 (3.6)	3.6 (3.8)
민간소비	1.7 (0.8)	0.7 (0.2)	2.6 (1.2)	2.7 (0.4)	1.9	1.7 (-0.1)	2.1 (0.7)	2.1 (1.0)	2.2 (0.6)	2.0	2.5 (0.2)	2.4 (2.8)	2.6 (2.6)	2.5 (2.7)
설비투자	11.1 (11.5)	-1.8 (-8.0)	-4.2 (-3.2)	-4.0 (-3.3)	0.1	-12.7 (1.5)	-3.9 (1.0)	1.5 (2.7)	10.9 (5.6)	-1.5	7.3 (-1.9)	7.0 (9.8)	3.9 (3.9)	5.4 (6.7)
건설투자	-0.2 (-2.1)	-5.4 (-3.0)	-2.7 (1.2)	-6.2 (-2.4)	-3.9	2.0 (6.5)	10.0 (4.6)	9.0 (0.2)	5.9 (-5.2)	6.7	4.3 (5.1)	3.1 (1.7)	2.1 (3.3)	2.6 (2.5)
수출	2.9	-1.7	-5.8	-0.4	-1.3	0.4	0.7	2.7	4.7	2.1	1.7	3.0 (7.5)	5.6 (9.3)	4.3 (8.4)

자료 : 한국은행.

주 : 1) () 안은 전기대비 성장률임. 단 음영이 있는 () 안은 2013년 10월 시점 전망치임.
2) 음영 처리된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② 소비 : 하반기에도 회복세 지연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세월호 사고의 여파 등으로 소비 회복세 지연

-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실질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상환부담, 미래불안, 세월호 충격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회복세 지연

< 민간소비 및 관련 변수 추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민간소비(%)	1.9	1.7 (-0.1)	2.1 (0.7)	2.1 (1.0)	2.2 (0.6)	2.0	2.5 (0.2)	-	-
소매판매(%)	2.4	0.3 (-1.0)	1.2 (0.9)	0.7 (0.8)	1.2 (0.3)	0.8	2.5 (0.4)	2.1 (1.6)	-0.1 (-1.7)
실질소득증가율(%)	3.8	0.1	1.3	1.5	0.7	0.8	3.9	-	-
소비자심리지수(p)	99	104	105	102	107	107	108	108	108 [10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취업지증가수와 평균소비성향은 증감,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2) 실질소득증가율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신분류 기준.

3) []는 5월 소비자심리지수.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회복세 미약

- 하반기에 민간소비는 세월호 여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지연,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미래불안 지속 등으로 회복세 미약

- 민간소비는 상반기 2.3%, 하반기 2.6% 증가하면서 연간 2.5% 증가 예상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1.9	1.9	2.1	2.0	2.3 (2.8)	2.6 (2.6)	2.5 (2.7)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상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은 2013년 10월 전망치.

③ 설비투자 :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미국 한파 등 대외여건 악화로 회복세 지연

-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미국 한파 등에 따른 일시적 수출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중국 경착륙 우려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둔화
 - 1~2월 미국 한파, 중국 수출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1/4분기에 1.7%에 그침
 -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착륙 우려,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여건 불안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

< 설비투자 및 관련 변수 추이 >

구 분	2012년 연간	2013년					연간	2014년		
		1/4	2/4	3/4	4/4	1/4		3월	4월	
설비투자(%)	0.1	-12.7 (1.5)	-3.9 (1.0)	1.5 (2.7)	10.9 (5.6)	-1.5	7.3 (-1.9)	-	-	
설비투자지수(%)	-2.8	-13.1 (-3.1)	-4.0 (1.1)	2.7 (5.0)	10.4 (5.9)	-1.3	5.8 (-5.3)	7.0 (1.2)	10.7 (2.6)	
설비투자조정압력(%p)	-0.7	-2.6	-1.6	-1.7	0.1	-1.4	-0.6	1.5	1.3	
기계류 내수출하(%)	-4.7	-18.8	-10.3	-6.8	-0.8	-9.4	0.4	2.1	3.0	
기업경기실사지수(p)	69	75	73	76	74	74	79	79	79 [7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기업경기실사지수(전산업 전망)는 마지막월 기준이며 []는 5월 자료.

○ (전망) 2014년 하반기에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 하반기에 설비투자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율 상승,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 설비투자는 상반기 7.0%, 하반기 3.9% 증가하면서 연간 5.4% 증가 예상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0.1	-8.3	6.2	-1.5	7.0 (9.8)	3.9 (3.9)	5.4 (6.7)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상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은 2013년 10월 전망치.

④ 건설투자 : 하반기에 증가세 둔화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으로 회복세 지속

-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경기 개선, 첨단 산업단지 조성, 미분양주택 축소 등으로 회복세 지속

< 건설투자 및 관련 변수 추이 >

구 분	2012년	2013년					연간	2014년		
		1/4	2/4	3/4	4/4	1/4		3월	4월	
건설투자(%)	-3.9	2.0 (6.5)	10.0 (4.6)	9.0 (0.2)	5.9 (-5.2)	6.7	4.3 (5.1)	-	-	
건설기성(%)	-5.0	4.4 (3.5)	15.0 (6.3)	10.5 (-0.1)	9.7 (-0.7)	10.1	6.4 (1.4)	2.2 (-3.8)	2.9 (6.9)	
건설수주(경상)(%)	-6.2	-40.8	-29.5	-10.6	22.4	-15.3	15.8	-11.0	42.2	
건축허가면적(%)	-0.5	-12.4	-14.6	-3.4	-0.2	-7.3	18.4	13.0	34.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해양부.

주 : ()은 전기대비 증가율.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건설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 하반기에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축소, 정부의 주택 인허가 축소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 2012~2013년의 건설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 다만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요 증가, 산업단지 건설 확대, 대규모 시설공사 진척 등은 긍정적 요인
- 건설투자는 상반기 3.1%, 하반기 2.1% 증가하면서 연간 2.6% 증가 예상

<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2년	2013년			201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3.9	5.9	7.2	6.7	3.1 (1.7)	2.1 (3.3)	2.6 (2.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은 2013년 10월 전망치.

⑤ 대외 거래 : 하반기 수출의 완만한 증가

○ (현황) 2014년 상반기 수출은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미약

- 상반기에 수출은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미국의 이상 한파, 중국 수출 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출 위축, 엔화 약세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

<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관련 변수 추이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경상수지	508	105	208	238	248	799	151	71	-
무역수지	283	56	144	108	133	440	52	45	53
수출 (증감률)	5,479 (-1.3)	1,353 (0.4)	1,412 (0.7)	1,368 (2.7)	1,464 (4.7)	5,596 (2.1)	1,376 (1.7)	503 (9.0)	478 (-1.0)
수입 (증감률)	5,196 (-0.9)	1,297 (-3.0)	1,268 (-2.8)	1,260 (0.3)	1,331 (2.5)	5,156 (-0.8)	1,324 (2.1)	459 (5.0)	425 (0.3)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 (전망) 2014년 하반기에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 하반기에 수출은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 중국 수출의 소폭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
 - 다만 신흥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 등은 제약 요인
- 수출은 상반기 3.0%, 하반기 5.6% 증가하여 연간 4.3% 증가 예상

<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전망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508	313	486	799	365(215)	425(275)	790(490)
무역수지	283	200	241	440	208(171)	246(199)	455(370)
수출 (증감률)	5,479 (-1.3)	2,765 (0.5)	2,832 (3.8)	5,596 (2.1)	2,847 (3.0←7.5)	2,989 (5.6←9.3)	5,836 (4.3←8.4)
수입 (증감률)	5,196 (-0.9)	2,566 (-2.9)	2,591 (1.4)	5,155 (-0.8)	2,638 (2.9←9.2)	2,743 (5.9←11.8)	5,381 (4.4←10.5)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014년 ()는 이전 전망치.

⑥ 고용 : 하반기에 고용 호조세 지속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정부의 일자리대책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지속

- 정년연장 법제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중장년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도 개선
 - 다만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함께 상승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신규취업자수	437	257	324	421	541	386	729	581	413
고용률(15-64)	64.2	63.0	64.8	64.9	65.0	64.4	64.4	65.4	65.6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9	3.6

자료 : 통계청.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도 고용 호조세 지속

- 하반기에 고용여건은 대내외 경기 회복, 정부의 일자리대책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등의 일자리창출 노력 지속
- 신규취업자는 상반기 60.0만명, 하반기 40.0만명, 연간 50.0만명 증가 예상
 - 15~64세 고용률은 65.2%, 15세 이상 실업률은 3.6% 전망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012년	2013년			201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신규취업자수	437	291	481	386	600	400	500
고용률(15-64세)	64.2	63.9	64.9	64.4	64.8	65.6	65.2
실업률	3.2	3.4	2.9	3.1	3.8 (3.2)	3.4 (3.0)	3.6 (3.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은 2013년 10월 전망치.

⑦ 물가 : 저물가 지속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소비자물가는 디플레이션갭, 환율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낮은 통화증가율 등으로 저물가 기조 지속

- 디플레이션 갭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미약, 환율하락 및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인한 공급측 물가상승압력 미약, 낮은 통화증가율 지속 등으로 저물가 추세 지속

< 물가상승률과 주요 수급요인 추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2.2	1.6	1.2	1.4	1.1	1.3	1.1	1.3	1.5	1.7
GDP갭률(%)	-0.8	-1.1	-0.8	-0.6	-0.5	-1.3	-0.5	-	-	-
수입물가(%)	-0.7	-10.0	-8.0	-5.9	-5.3	-7.3	-4.1	-4.5	-6.9	-6.8
통화(M2)(%)	4.8	4.8	4.9	4.2	4.6	4.6	5.0	5.0	5.4	-

자료 : 한국은행, GDP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도 환율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저물가 추세 지속

-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갭이 축소될 것이나, 환율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으로 저물가 기조 지속
- 다만 농산물가격 상승 가능성, 전세가격 불안 지속,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등으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5%, 하반기 1.9%로 연간 1.7% 예상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2년	2013년			201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2	1.4	1.2	1.3	1.4 (2.2)	1.9 (2.6)	1.7 (2.4)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은 2013년 10월 전망치.

⑧ 원화 환율 : 원화 강세 지속

○ (현황) 2014년 상반기에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등으로 하락세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내수 침체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강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외환당국의 외환정책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현황 >

(원)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6월
원/달러	1,127	1,085	1,123	1,124	1,062	1,095	1,069	1,043	1,020	1,020
원/100엔	1,413	1,176	1,137	1,111	1,058	1,123	1,040	1,017	1,004	998

자료 : 한국은행.

주 : 1) 평균 환율 기준. 2) 6월은 6월 19일까지 평균.

○ (전망) 2014년 하반기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나타난 양호한 거시경제 건전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지속되어 하락 전망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달러화 강세 전환, 신흥국 금융불안,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은 제약 요인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050원, 하반기 1,010원, 연간 1,030원 예상

< 원/달러 환율 추이 및 전망 >

(원)

	2012년	2013년			201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원/달러 (평균)	1,127	1,104	1,086	1,095	1,050 (1,080)	1,010 (1,060)	1,030 (1,07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은 2013년 10월 전망치.

3. 2014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¹⁷⁾

< 2014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12년 연간	2013년			201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2.3	2.4	3.5	3.0	3.7 (3.9)	3.6 (3.6)	3.6 (3.8)
	민간소비(%)	1.9	1.9	2.1	2.0	2.4 (2.8)	2.6 (2.6)	2.5 (2.7)
	건설투자(%)	-3.9	6.4	7.0	6.7	3.1 (1.7)	2.1 (3.3)	2.6 (2.5)
	설비투자 (%)	0.1	-8.3	6.2	-1.5	7.0 (9.8)	3.9 (3.9)	5.4 (6.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313	486	799	365 (215)	425 (275)	79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200	241	440	208 (171)	246 (199)	455 (370)
	수 출 (억 달러)	5,479	2,765	2,832	5,597	2,847 (2,972)	2,989 (3,095)	5,836 (6,067)
	(증가율, %)	-1.3	0.5	3.8	2.1	3.0 (7.5)	5.6 (9.3)	4.3 (8.4)
	수 입 (억 달러)	5,196	2,566	2,591	5,156	2,638 (2,801)	2,743 (2,896)	5,381 (5,697)
	(증가율, %)	-0.9	-2.9	1.4	-0.8	2.9 (9.2)	5.9 (11.8)	4.4 (10.5)
소비자물가(평균, %)		2.2	1.4	1.2	1.3	1.4 (2.2)	1.9 (2.6)	1.7 (2.4)
실업률(평균, %)		3.2	3.4	3.2	3.3	3.8 (3.2)	3.4 (3.0)	3.6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101	1,095	1,098	1,050 (1,080)	1,010 (1,060)	1,030 (1,070)

주 : 2014년 수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는 2013년 10월 전망치.

17) 2014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6%는 통계 개편 효과를 제거할 경우 0.4%p 하향 조정된 것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6월 12일	6월 19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0	2.62	0.02%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70	101.94	0.2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552	1.3608	0.0056\$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734	16,922	188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974	15,361	38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79	2.68	-0.1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17.2	1,018.7	1.5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11.7	1,992.0	-19.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6월 12일	6월 19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6.47	106.51	0.04\$
	Dubai	107.99	100.38	107.88	106.96	110.46	3.50\$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9.30	312.47	3.1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4.3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4.4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